

石油増産으로 OPEC의 結束을 위협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속사정

나이지리아는 OPEC總會의 生産限度量을 무시한 채 계속 싼 값으로 原油를 販賣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需要가 增加하면 各産油國의 増産競争을 불러 일으켜 또 다시 價格引下를 誘發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OPEC內의 가장 취약한 石油시세는 자연히 産油國카르텔의 崩壞를 企及하고 있는 메이저에게 있어서 좋은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

昨年末, 메이저가 油價引下를 피하였을 즈음, 사우디아라비아가 셸, 걸프등에 压力을 넣어 油價引下를 封鎖하는 것과 동시에 나이지리아에 多額의 財政지원을 해주어 고비를 넘긴 일이 있었다.

그러나 주위의 經濟危機는 여전히 심각하고, OPEC로서는 폭탄을 안고 있던 격이었다.

OPEC의 合意를 上廻하는 生産量

나이지리아의 石油生産은 高價格을 보이던 지난 81년 여름만 해도 70만B/D까지 감소했었으나, 同國의 石油生産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셸과 걸프 2大 國際石油資本이 사우디아라비아등의 強硬한 제의를 받아들여 生産再開을 단행한 이래 급속히 改善되어, 今年 5月에는 170만B/D까지 증가함으로써, 지난 3月 런던 臨時總會에서 결정된 나이지리아에 대한 OPEC의 生産上限이 130만B/D를 크게 上廻하는 結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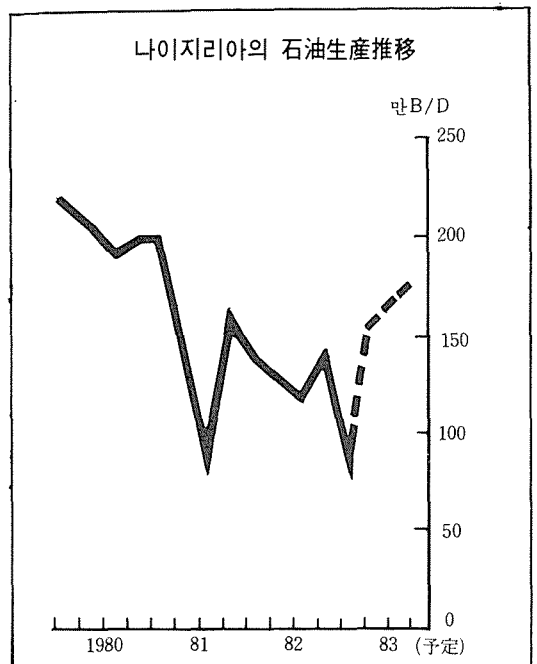
그 때문에 똑같은 高級輕質油 生産國인 알제리는 이러한 나이지리아의 増産으로 스파트市場이 압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145만B/D의 OPEC生産限度量을 販賣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어 버렸다.

石油價格이 배럴당 29달러에 머물러 있다고 假定하고

나이지리아가 금년도의 輸入에 相當할 外貨를 벌어들이는 데는 今後 95만B/D의 石油輸出만으로도 충분하다. 170만B/D의 石油生産은 輸出에 있어서도 이미 당초의 予定를 크게 上廻하게 되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事實, 나이지리아政府는 今年 3月 이래 중지해 오던 輸入許可의 發給을 5月末에 再開하고, 또 昨年부터 실시되어온 엄격한 輸入制限措置를 大幅으로 완화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서방諸國의 수출은 지난 한해동안 승용차, 각종 건설자재, 공업용재료, 대형플랜트등 모두가 중단 狀態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原料 輸入에 대해서도 船積檢査制度의 적용등으로 規制하고, 公



務員의 海外訪問禁止, 家具의 購入規制, 国内諸会社の 利益과 配当의 海外送金지체지시등에 의하여 엄격한 外貨流出규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200만명에 달하는 外国人노동자를 국외로 추방한다는 非常措置를 취한 것도 石油收入 격감에 따른 경제破綻과 외화부족이 가져 온 결과이다.

그렇지만 예상 이상으로 빠른 石油生産의 回復과 수입규제의 완화에는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났다. 사가리政權은 이에 대해 詳細한 論評을 피하고 있지만, 国内対策上的 필요와 국제환경의 약간의 변화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특히 後者에 대해서는, 스파트시장을 시초로 하여 나이지리아産原油에 대한 需要가 增加하고 있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로는, 對外債務의 지불과 신규융자를 둘러싸고 IMF와 歐美은행과의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對外債務累積額은 약 60억달러로 昨年 12月 主力債權銀行인 바크레이은행, 파리국립은행, 차타드은행등 3개 은행을 통하여 22개의 신디케이트은행단에 대한 短期債務의 中期로의 轉換을 신청하고 있지만, 이동안 16억달러에 대하여는 은행측과 기본적합의가 최근 성립되었다.

바크레이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그 내용은 支拂期限이 다 된 信用狀에 의한 수입대금은 期限 3年の 융자로 바꾼다. ② 金利는 런던의 은행간 거래금리에 1.5%나, 미국 프라임레이트에 5%를 더한것으로 한다는 것등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債權者인 은행측에 支拂期限의 연장을 인정받는 대신 割増金利의 支拂을 約束하는 것으로서, 은행측으로 볼 때 결코 不利한 내용은 아닌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나이지리아는 IMF와의 사이에 31억 달러의 신규개발원조供与를 둘러싸고 교섭 중이지만, 서방측 기업과 은행측의 강한 적극적 공작도 있으므로 얼마 안 있어 실현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말한 어느 것도 풍부한 石油資源과 아프리카 最大의 인구를 안고 있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뜨거운 視線을 느끼게 하는 일련의 움직임인 것이다.

큰 利益을 낸 서방기업, 은행

그런데, 서방측의 大企業과 금융기관은 이 經濟破綻에

직면한 石油大國에 집착할 것인가?

나이라貨(나이지리아의 通貨)는 산유국통화 중에서 가장 不安定하여 어느 누구도 보유하길 원치 않는 石油通貨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된 것은 同통화가 나이지리아 수출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石油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달러화의 대응에 따라 심한 등락을 반복하여 온 결과이긴 하지만, 表現을 바꿔 말하면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다른 어떠한 국가보다도 国庫收入의 경우 石油依存率(97%)이 높아서, 경제기반이 약하고 尙外的으로도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의 石油는 巨額의 수익을 국제석유자본과 국제은행에 保証하여 왔다. 70년대의 石油危機, 産油地에 있어서의 이른바 "石油붐"이 일어난 가운데, 巨額의 資金이 서방諸國의 企業과 銀行으로부터 나이지리아에 投下되었지만, 그 어느 것도 巨額의 利潤이 되어 되돌아 오고 있다.

石油事業을 例로 들면, 나이지리아에서 最大의 생산량을 올리고 있는 것은 국제석유자본인 쉘, 걸프, 모빌로 알려져 있는데 모빌의 現地法人 모빌·나이지리아(同國第2의 生産量)은 73년부터 80년까지의 기간동안 売出額을 3배나 伸張시키고 있다. 이밖에 텍사코, BP 등의 국제석유자본, 美国内の 大去來처인 필립스, 프랑스系の 会社등이 나이지리아의 石油開發에 뛰어 들어 巨額의 收益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会社들은 나이지리아 国营石油会社와 합작이라는 形態는 유지하지만, 그 資本支配力은 다른 OPEC諸國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強하며 그만큼 收益率도 높다.

그밖의 産業에서도 西獨의 벤츠, 이탈리아의 피아트 등의 自動車資本으로부터 IBM, GE등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서방企業들이 이 나라에 資本投下를 시도하고 있으며, 石油産業과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기간동안 2배에서 3배까지의 收益을 올렸다.

銀行業務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다. 例를 들면 체이스 맨하탄이 40%의 資本을 所有하고 있는 現地銀行- 체이스 맨하탄·나이지리아는 78년 1년 동안에만 68%나 되는 收益增加를 기록하였으며, 資産도 倍加되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系列인 사만나 뱅크·나이지리아도 그 해에 資産및 稅後所得이 각각 60%增加를 나타냈다. 그 후의 나이지리아産原油의 販売不振과 경제 위기가 없었다면 그 会社들은 더욱 큰 收益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最近에 있어서의 나이지리아의 石油生産의 급속한 회

복과 수입규제의 완화는 나이지리아 경제가 오늘날 처해 있는 特殊性에 대한 이들 서방諸國의 기업과 은행의 관심을 排除하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新規용자가 약속되어 있고, OPEC의 生産限度量을 넘어 生産量の 拡大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그회사들의 경우에는 多少 리스크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나이지리아가 여전히 収益性이 높은 국가로 비치고 있는 이상 틀림없는 일이다.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아프리카의 一個 石油大國이 OPEC諸國 중에서 가장 貧弱하면서도 이들 카르텔체제를 무너뜨리려 하는데다가, 좋은 공격대상으로 보이고 있다는 일이다. 이것은 70년에 産油테리비아의 攻勢에 敗한 옥시덴탈石油과 입장이 유사하지만, 다만 이번에는 産油테이 공격을 받는 측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제석유자본의 경우, 나이지리아에의 介入과 攻勢를 강화하는 것이 OPEC와의 力学關係를 전환시키는 실마리를 쥐는 것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昨年末, 나이지리아原油에 대한 需要가 감소하고, 同國의 石油收入이 激減하였을 때 同國의 經濟는 곧 不安定한 상태로 빠져 들게 되었는데, 그 당시 국제석유자본들은 이 나라가 OPEC 중에서 가장 약한 입장에 처한 것을 예리하게 보아 두었음이 틀림없다. 이 때 대담한 생산삭감에 의하여 나이지리아産 原油價格을 北海産 原油와 같이 引下(배럴당 35달러에서 31달러)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은 쉘, 걸프, 모빌등의 국제석유자본이었다.

이 당시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의한 大規模 재정원조 및 쉘, 걸프에 대한 압력행사로 나이지리아의 위기가

극복될 수 있었지만, 나이지리아를 다루기 여하에 따라 形勢는 언제라도 逆轉될 가능성이 있는 점은 현재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内政上 200만B/D의 生産이 必要

한편 石油問題는 나이지리아의 内政 面에서도 중대한 그림자를 드리워 놓는 결과가 되고 있다. 오늘날 나이지리아政局의 最大争点은 石油政策을 둘러싼 문제에 있는데 사가리大統領의 政敵들은 「市場의 實勢에 어긋나게 高價格을 계속 유지하여 국제적인 판매경쟁에서 패했다」고 하며 政府批判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통령으로서도 이러한 비판을 無視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사가리政權이 内政上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나이라貨를 現在の 弱勢로부터 회복 시키려 하고 있다면, 石油生産은 확실히 200만배럴까지 끌어 올려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増産을 하게 된다 하여도 OPEC의 균열을 조장하지 않는 정도까지 拡大할 것 또한 확실하다. 또한 설사 그러한 増産을 實行에 옮겼다 할지라도, 나이지리아가 오늘날의 경제위기로부터 脱出할 수 있으리라는 保証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인플레이션 35%, 거의 進展을 보이고 있지 않은 開發計劃, 經濟의 全分野에 확대된 바틀넥(bottle neck) 현상, 농촌人口의 首都'라고스주변으로의 破局的인 集中과 首都의 슬럼화, 노동人口(3,300만명)의 불과 6%밖에 吸收하지 못하는 石油産業의 發展으로 인한 농업 등의 傳統産業의 급속한 衰退等...

73년이래의 "石油붐"은 나이지리아경제를 어느 産油國보다도 不安定한 狀況으로 몰아 넣어 버린 것 같다.*

• 건전한 秋夕맞이 캠페인 •

차림은 검소하게

마음은 풍요롭게